

공공도서관 지역따라 불균형 심각하다

광주 북구 10만명당 1개도 안돼

강진·담양은 10개 읍·면·동에 1개도 없어

감사원 감사 결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허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말은 독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독서는 시공을 초월해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행위이다.

이처럼 독서가 중요한 습관이지만, 정작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1개를 이용하는 인구 차이가

지역별로 9배에 달할 만큼 지역별 쏠림 문제가 적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와 전남은 정치와 경제, 산업 등 차별에 이어 도서관과 같은 문화 시설 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문화향유권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도서관이 박물관 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비교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정보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정보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공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년)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1100개를 건립해 인구 4만5000명당 1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기간 광주 북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데도 공공도서관은 고작 1개에 그쳤다.

이밖에 서울시 4개구(중랑구, 마포구,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를 비롯 경기도의 정주시, 강원도 원주시, 인천시 서구 등 지자체 19곳이 도서관 1개당 인구 10만 명을 넘었다. 또한 10개 읍·면·동당 1개의 공공도서관도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남 2곳(강진군, 담양군), 전북 1곳(진안군) 등 17곳이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계층을 일정 비율 공연에 초청해 하는 ‘방방곡곡문화

공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획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14년 문화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 25%에 못 미치는 공연이 전체 대상 346건의 19.9%에 이르렀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 12개 프로그램도 2014년 기준 참여비율이 1.25%에 불과했다.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예상했던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가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진행하면서 140만원 이상의 예술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해 정작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붕괴위험’ 광주 평화맨션 재난관리기금 지원 된다

38가구에 3000만원씩 용자

붕괴위험으로 주민 대표명령이 내려졌던 광주 북구 평화맨션 입주민에게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11일 평화맨션 B동 입주민(60가구) 중 용자 신청한 38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씩을 용자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주택임차비용 용자방집이 최종 결정됐으며 조만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리 등을 확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는 재난위험시설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대 3000만원 범위(보증금의 70%) 내에서 임차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 북구는 앞서 38가구에 가구당 350만원씩을 용자지원한 바 있다.

입주민이 부담할 금리는 연 3~5%며 최대 3년 거치에 5년 안에 갚아야 한다. /윤영기자 penfoot@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재난을 당한 입주민이 부담하는 금리치곤 높지는 않다.

시는 관련 규정에 금리가 명시된 만큼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A동(112가구) 입주민은 대피명령 미발령으로 용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대피명령이 2014년 7월 내려진 뒤 1년반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현재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475억원이며 금융기관의 무이자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330억원에 달하고 있다.

1981년 준공된 평화맨션은 2개동에 1727가구가 살아왔지만 2014년 7월 지하 3층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시급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윤영기자 penfoot@

롯데 월드컵점 불법전대 시정계획 미흡 광주시 “절차대로 진행” 강경 대응 시사

시민 납득하기 어려워 시, 조만간 입장 밝힐듯

광주시가 롯데쇼핑(주)의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롯데측은 지난 5일 시의 시정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이행계획이 매우 미흡하다”고 일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은 개선계획서를 통해 무단전대 매장의 원상 회복, 현 대부로 선정방식 변경, 불법 전대 추가 수익 환원 계획 등을 제출했다.

시는 롯데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신뢰성 여부,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진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행개선 계획서에 따르면 롯데 측이 무단전대 한 면적은 41개 매장에 4847㎡로 조사됐다. 롯데측은 이미 임대매장의 직영(특정매입)매장 전환을 추진, 27개(1956㎡)를 완료했다. 나머지 전세차 보호 등을 고려해 내년 2월1일까지 차례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유상대부 면적은 애초 알려진 1만3000여㎡보다 5000여㎡가 많은 1만8108㎡로 드러났다.

현재 연간 48억5000만원(정액)씩 20년간 내기로 한 대부료(사용료) 선정방식 변경과 관련해 롯데 측은 “대부계약을 변경할 의무가 없다”면서 “시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다만 “계약 변경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대부료는 합리적 대안을 전제로 상호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과도한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그동안 불법 전대에 따른 추가 수익도 즉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뜻을 내비쳤다.

시는 그러나 롯데 측이 밝힌 시정계획에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행계획이 매우 미흡하다.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구체적 대응수위와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여기에는 윤장현 시장이 ‘법과 원칙에 다 시민의 납득할 만한 수준’을 대(對)롯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의 조치에 강도높은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하고 있는 점도 광주시의 향후 대응 수위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청 안팎에서는 롯데측에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설연휴 끝나자 쓰레기 수거 분주 설 연휴가 끝난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명절기간 쌓인 쓰레기들을 수거업체직원이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특혜논란 챔피언스 필드 운영권 재협상

다음달 5일 개최기로

광주시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가 챔피언스 필드 운영권 재협상에 나선다. 광주시는 11일, 경기장 운영 수익금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된 만큼 오는 3월5일부터 운영권 재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이 됐던 경기장 운영수익금 등을 평가할 운영·손익평가위원회 인원은 현행대로 5명으로 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명을 늘려 7명을 주장했지만 기아 측은 기존 안대로 5명을 고수했다.

시는 평가위원회 구성시기를 놓고도 기아 측과 줄다리기를 했으나 2월 사업협상 시 하겠다는 기아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광주시가 2011년 새 야구장 전체 공사

비 993억원 중 300억원을 부담한 기아 측에 25년 무상 사용(야구장 운영권, 광고권, 명칭 사용권)권을 주기로 한 협약을 놓고 시의회,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요구가 빚뻗었다. 최종 협약은 야구장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루어진 특혜협약이라는 지적이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면서 광주시는 2013년 4월 재협약을 했다. 재협약 내용은 2년 사용하고 나서 수익금을 분석, 평가해 사용기간(25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재협상 시기가 다가오자 9월부터 재협상 개시 요구와 함께 수입 및 지출 자료 제공 등을 요구했지만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울 시내면세점서 전남 농수산물 만나다

용산역 HDC 신라면세점 특산물 판매장 26일 운영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에서 전남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역 HDC 신라면세점에 전남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전남도는 농수산물 소포품 공동 브랜드인 ‘남도미향’을 면세점 입점 대표 브랜드로 지정하고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

는 유자차, 장흥 무산김, 황칠 등 24개 상품을 우선 선정했다.

앞으로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취향에 맞는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면세점 내 판매 확대는 물론 중국 내 현지 시장 개척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산물 판매장은 면세점 7층에 총 30평 규모의 지하채관 형식으로 운영되며, 용산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전남도와 함께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가 함께 참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 010-3608-8897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원동 22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원동 1982-24 (영남동 225-4)

제주아이브

통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도움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통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클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영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의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얼리버드이벤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착용,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과 15명 통나무원동 1박 + k5 or Y5소나타 24시간 79,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원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보울 완벽, 조·중·석식가능